

목표달리다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환경 유해물질 무단 방류

금강하구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로 사용

익산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익산시는 9월 1일부터 11월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단위로 작성하고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관리하고 있다.
이번 농지원부 중점 정비대상은 한 세대 내 농지원부가 2개 이상 농가, 농가주 및 농가 구성원이 중복으로 등재된 농가, 농지원부 등재기준 미만 농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의 소유인 정보와 토지대상장 소유인 정보가 다른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중점 정비대상 농가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원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익산시는 지난 9월1일과 2일 양일간 스포츠문화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종영업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식업중앙회 전라북도지회 익산시지부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의 식품안전성 확보로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상차림으로 좋은 인상 남기기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이 자리에서 위생업소 영업자 익산 주수 갖기 운동, 나트륨저감, 덜 달게 먹기 홍보물을 배부하고, 외국인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해상 레저보트 전복사고 발생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은 지난 4일 오후 2시에 군산항 남방파제 남서쪽 180m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0.5톤급 레저보트 1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레저보트는 이날 오전 6시 군산시 육도면 신지항에서 출항해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해상에서 낚시활동 중 강풍과 너울성 파도로 인해 레저보트가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레저보트에 타고 있던 김모씨(34) 등 4명은 주변 선박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구명조끼를 입고 해상으로 입수했고, 다행히 주변에 있던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에 의해 익수자는 모두 구조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상수도시설물 특별점검

익산시는 추석을 맞아 상수도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추석대비 상수도 시설물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상수도과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상수도 정수생산 시설물 기계와 전기 등 각 분야 전반에 걸쳐 기계의 소음·진동 상태 확인, 전기 절연저항측정 및 변압기 적정온도 확인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현장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은 곧바로 보수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주 상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생산 시설물은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이 있다. 이밖에 가압장 2개소(금마, 삼기)와 배수지 5개소(신흥, 금강, 금마, 팔봉, 삼기)가 있어 시민에게 연중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3.4t 상당을 금강하구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소 유해물질 방류여부에 대해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2010~2015년까지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소포제(거품제거제)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련자를 소환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LNG복합발전소는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온배수 배출 과정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 3.4t을

사용했으며, 서부발전 본사의 권고에 따라 6월 이후부터 사용을 중단하고 온배수관 입구에 오일펜스를 이용해 거품을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NG복합화력은 그 동안 디메틸폴리실록산을 금강하구의 실뱀장어 어업인과 연안 어민들의 민원을 우려, 거품제거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실리콘 고무 주원료와 바닷물 기포제거제로 주로 쓰이는 화학용품으로 2008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Y류 해양폐기제한물질로 지정했다.
Y류는 해양저원이나 인간 건강, 해양의 패적성이나 적합한 이용에 위해

를 끼치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다.

해경은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총 3.4톤의 소포제를 16억톤의 온배수에 섞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양환경관리법 공소시효 5년에 근거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군산지역에는 현재 복합발전소, 군장화력발전에너지가 운영중에 있으며, 새만금지역에 한화에너지, OCI 열병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지만 군산복합화력발전소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는 공기냉각방식으로 냉각을 하고 있어 바다에 온배수를 배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한창

대학가요제 · 모던걸 · 모던보이 패션쇼 · 타임슬립GOGO장 등

군산시가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즐길 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만들기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군산시간여행축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개최되며 근대역사박물관 옆 특설무대에 꾸며져, 총 40여개의 프로그램이 원도심 전역에서 펼쳐진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는 Forever 대학가요제, 모던걸·모던보이 패션쇼, 번사와 함께하는 타임슬

립GOGO장 등 근대로 떠나는 특별한 시간여행의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3.5 만세 퍼레이드, 어린이독립군 체험, 쫓고 쫓기는 가시탈 게임 등은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누비며 이벤트를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축제 주제에 맞게 근대복장을 입고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는 이벤트를 진

행하는 등 축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군산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의 알찬 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축제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즐기고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보건소, 만성질환관리 건강리더 양성교육 수료식

군산시보건소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해 건강리더 30명을 양성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건강리더 양성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통·이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만성질환 자가 관리법,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 뇌졸중·심근경색증 바로알기, 흡연이 심뇌혈관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사회 건강리더 역할 수행을 위한 지도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수료한 건강리더는 "보건소에서 좋은 교육을 운영해줘 고맙고 배운 내용들은 잊지 않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지역사회



회 건강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 한편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건강공동체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뇌졸중 응급증상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추석연휴기간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

익산시는 추석을 맞아 5일부터 21일까지 공장밀집 지역과 익산천 상류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위치한 축산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추석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폐수, 가축분뇨 등)에 대

한 감시·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명절 연휴 전후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기간에 따라 추석연휴 전·중·후로 구분하고, 감

시반을 편성해 진행됐다. 연휴 전인 9월 13일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점검활동을 강화한다.

추석연휴 기간은 익산시 녹색환경과 내 상황실을 설치해 공단주변 하천과 도축·도계장, 축산시설 등 오염 유입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1001 안경점(대표 서지만)이 '사랑의 맞춤형 안경' 100점(5백만원 상당)을 후원한다. 맞춤형 안경 후원은 추석을 맞아 나문2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어려운 이웃 100명에게 안경 100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 곳곳 추석 맞아 온정의 손길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들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군산 육산농협 주부모임회원 20여명은 한가위를 맞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저소득층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김치는 관내 경로당과 사랑방 18곳과 저소득층 60가구에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장제동 소재 뽕배야면면(대표 송형자)은 백미 10kg 50포대(130만원 상당)를 흥남동 주민센터(동장 김병오)에 기탁했다.

뽕배야면면은 매년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어르신들과 인근 경로당 어르신들을 수시로 초청해 식사 사대접을 하며, 명절에는 흥남동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기부와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군산 1001 안경점(대표 서

지만)이 '사랑의 맞춤형 안경' 100점(5백만원 상당)을 후원한다.

이번 맞춤형 안경 후원은 추석을 맞아 나문2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어려운 이웃 100명에게 안경 100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1001 안경점 서지만 대표는 "이번 맞춤형 안경 지원이 학생들과 독거어르신들의 시력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추석명절을 맞아 따뜻한 마음이 전달 되도록 맞춤형복지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군산 개성교회(목사 최용준)는 개성동 주민센터(동장 김병오)에 기탁했다. 개성교회는 2013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설과 추석명절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느끼고 좀 더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노인일자리 삼동실업 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은 올해 초 시작한 노인일자리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5일 (주)삼동실업을 방문했다. (주)삼동실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익산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공사업장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해 섬유 및 상품 등의 포장 등을 통해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참여시간에 따라 인건비를 분배 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공동사업장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근무하는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고 근무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익산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이에 시니어클럽 한 관계자는 "일자리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66개 사업에서 2,95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자살기도자 구조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재)에서는 5일 새벽 모현동 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한 남성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가족에게 넘겨주며 주민에게 공감 받는 치안을 구현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달일 새벽 "아버지가 죽는다는 전화"를 받고 배란다고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아들"의 급박한 신고를 받고 자살기도자의 주소지와 신원 파악 위해 특정조치를 의뢰 후 신속하게 현장 출동했다.

윤경용 경위와 백경주 순경은 문이 잠겨 있는 아파트 현관을 개방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했고, 휴대전화로 자살기도자에게 연락하여 구급차의 도착을 기다리게 한 후 신속하게 현장 출동했다.

신속히 119에 공조요청을 한 후 구조대원이 배란다 아래에서 모포를 가지고 추락에 대비하고, 두 경찰관은 신속히 현관 옆 방범문을 절단하고 아파트

안으로 진입 자살 기도자가 배란다로 다가서는 것을 발견하고 숨에 취해 "내가 죽고 싶어 그런데 왜 그러냐"며 발버둥치고 거부하는 구조자의 팔과 몸통을 나누어 붙잡아 무사히 구조 후 진정시켜 지구대에 보호조치 했다.

안과 화상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내려와 구조된 아버지를 만나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멀리 있어 급박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하는 중에 무턱대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백경주 순경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경찰로서 정말 보람된 일을 한 것 같아 뜻깊고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일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느껴 앞으로 공경받는 치안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